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 7, 10-14

[화답송] 시편 24(23), 1-2, 3-4, 7-8, 5-6 (◎ 7과 10과 참조)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 2독서] 로마 1, 1-7

[복음 환호송] 마태 1, 23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마태 1, 18-24

성가	8시 미사	입당 88	봉헌 91 211	성체 159 165	파견 89
	11시 미사	입당 88	봉헌 91 211	성체 159 165	파견 89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대림 제 4주일(12월 22일)		성탄 전야 밤미사(12월 24일)	성탄 미사(12월 25일)
	8시	교중미사	저녁 8시	오전 11시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정스텔라(애리)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임승원(루카)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김안젤라(영선)	허파비올라(옥진)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구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12월 29일)		송년미사(12월 3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1월 1일)
	8시	교중미사	저녁 8시	오전 11시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황테레사(혜정)	허세실리아(홍숙)	이마리크레센시아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김길베르토(광호)	최다니엘(대연)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서테레사(춘애)	-	김테레사(승희)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드디어 대림환의 4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지하게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특히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마태오복음의 본문은 기적과 평범한 사건들, 하느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큰 위험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간음죄로 몰려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서조차 처녀의 몸으로 아기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절대적인 역할과 약혼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꿈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주님의 천사의 말씀에 순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기꺼이 성가정의 가장이 되었던 요셉의 인간적인 고뇌와 위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이 세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지 않기에 요셉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의 마음을 한 번 헤아려봅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자신도 모르는 잉태를 하였으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너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의 극적인 개입으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마태1,24)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뛰어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연초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일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만 되지 않으며,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결국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좋은 믿음으로 살다보면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마리아의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명 그리고 요셉의 고뇌와 희생과 순명이 있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순명이 필요합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래전 제가 사목했던 본당 근처에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봉성체를 하였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본당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 역시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 “신부님, 우리 집 식구는 세 명이에요.” / “예?” / “성모님, 예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 성인만 불쌍하게 됐네요.” 라고 농담을 하자 할머니께선 “그러네요!” 하시고는 이내 까르르 웃으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정말 그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 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자성사를 받으셨는데, 그날따라 곱게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신부님! 절 받으세요.” / “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손자빨인 제게 왜 절을 하시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드리려고요. 이 누추한 곳에 매달 와 주신 것도 고마워서요.” 할머니는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있는 제게 불편한 몸으로 자꾸만 절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할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것만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신부님, 나는 성모님,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 어딜 가도 무섭지 않아요.” 그 후 채 한 달이 못 되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을 지켰던 신자들이 할머니가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난 성모님,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소녀처럼 활짝 웃으시던 그 할머니의 미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청년 요셉에게 천사는,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요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더 당혹스러운 사람은 당사자인 마리아였습니다. 천사의 말인즉, 그가 낳을 아들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마태 1,20-21 참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은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마 내버리지 못하시

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깊은 믿음에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둠의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여도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시편 23,4 참조)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에 신음하고 억울함에 서러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힘을 내어라.”

허영엽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기에
‘네’라고 응답할 수 있으셨던 성모 마리아
구세주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글_이해인 수녀 / 그림 구민정 엘리사벳

성탄 선물

말씀의 향기

제가 열아홉 살 때 아버지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감당하느라 벅차기도 했고, 단순히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한참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족히 2년은 그렇게 날개 부러진 새처럼 지냈지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 후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별리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제법 담담하게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나고 아버지와 많은 기억들이 점차 머릿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기억을 잃는 것은 또 다른 두 번째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부엌에 빛바랜 사진 같은 모습으로 남아 아무리 애를 써도 또렷한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느님 곁에서 편히 쉬시리라는 생각도 다시 되풀이되는 이별의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는 데는 도움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두 번 잃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중년이 되어 성당을 찾은 어느 성탄절이었습니다. 게으름을 부리다 늦게 도착한 성당은 이미 미사 보러 온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어 복도까지 꽂 차 있었습니다.

성당 안쪽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소리가 이끄는 대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 현관 앞자리에 간신히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병풍처럼 앞을 채운 사람들의 실루엣만이 눈앞을 채웠고, 등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못된 생각이지만 솔직하게 미사가 얼른 끝났으면 싶었습니다.

성가를 부르며 숨을 ‘훅’ 들이 쉴 때마다 솟았다 내려앉은 앞사람의 어깨가 참 낮이 익다는 생각이 든 것은 미사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인가? 왜 낮이 익지?’ 그러다 생각이 어느 기억 속의 모습에 이르자 가슴이 찡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익숙한 어깨는 아버지의 어깨였습니다. 그토록 떠올려 보려 애를 써도 멀어져 가며 사라져 버린 기억 몇 조각이 홀연히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며 이마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때리던 추위도 잊었고 혼돈과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벽에 붙어 서게 되었어도 몰랐습니다.

기적의 선물처럼 작은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검버섯이 가득하고 두터웠던 아버지의 손이며, 옳지 않은 일을 대하고 화가 나서서 앙다문 입술의 모습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았던 시각적 이미지들이 그 날 그렇게 기적처럼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새 돌아온 그 장면들을 행여 다시 놓칠까 안타까워하며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성탄절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 주신 성탄 선물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날의 일을 지금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드린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신 것도 같습니다.

연옥을 면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시며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이나 제게서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느님께서 그 성탄절에 아버지를 제게 선물처럼 돌려주셨습니다.

박용만 실바노
(주)두산 회장

머 무 림

생명의 복음은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공동선을 건설하여 사회의 쇄신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하지 않고는 공동선의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101항

가톨릭전례

준성사

1) 준성사의 특징

성사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7성사와는 구별되지만, 마찬가지로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준성사들도 갖고 있습니다. 준성사는 성사가 아니지만 성사에 버금가는 은총을 받도록 도와주는 예식들입니다.

준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대리하는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성사는 그 거행 자체로써 은총을 받게 되지만 준성사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성사는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은총에 협력하도록 결심하게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70항).

준성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만 마술적 효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준성사들의 진정한 목적은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장시키고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2) 준성사의 여러 형태

축성: 사람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물건과 장소를 전례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축성에는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의 축복, 동정녀들과 과부들의 봉헌, 수도 서원예식, 그리고 교회 직무(독서직, 시종직, 교리교사 등)를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품성사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물건에 대한 축복의 예로는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 또는 축복, 성유와 제기와 제의와 종 등의 축복을 들 수 있습니다.

봉헌된(축성된) 사람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느님께 봉헌한 ‘하느님의 사람’ 으로서, 평생토록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축성된 사물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축성된 목주는 기도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패션 장식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축복: 사물이나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부나 어린이, 산모나 병자 또는 집이나 자동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일반적으로 한국 주교회의에서 발간한 축복예식서를 가지고 전례 기도를 바치며 성수를 뿌리는 예식으로 거행합니다.

구마: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청하는 것을 구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셨으며 교회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과 의무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구마는 주교의 허가를 받아서 사제만이 행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병, 특히 정신 질환은 마귀 들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마를 행하기 전에 질병이 아니라 마귀들린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구마도 축복의 일종입니다. 사탄과의 투쟁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준성사는 누가 행하는가?

성사를 아무나 거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성사 역시 주교와 사제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축성과 구마는 평신도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경우에는 평신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로 받은 보편 사제직에 속한다.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 그 자신이 ‘복’ 이 되어야 하며 남을 축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집전할 수 있는 축복 예식들도 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성사 생활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축복은 서품 성직자들(주교, 사제, 부제)만 할 수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69항).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자신과 자기 가정에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청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고, 이웃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 집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날짜	지향	봉헌자
12월22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박데레사(병순)	권바실리오
	연 김말따	정베드로/아가다
	연 찰스 오쿠모토	신미카엘라
	연 최유리자	가족
	연 김베로니카(혜자)	김케네스(관용)가족
	연 조바오로(병철)	조바실리오(진행)
	생 박리노	이골롬바
	생 김유진/김유리	이골롬바
	생 박글라라와 자손들	박데레사
	생 김안토니오/이마리아	이아나스타시아
	생 김안나(형순)	임안젤라(승주)
	생 김크리스티나(나영)	서데레사
12월27일 금	연 안바오로(승설)	박헬레나
	생 김요한사도(홍진)신부님	김카타리나
	생 윤요한사도(성일)	영원한도움의어머니
	생 윤요한사도(성일)	박세레나
	생 진파비올라(소연)	염파트리샤
12월28일 토	연 박토마(정영)	박헬레나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9	240	44	373
헌 금	\$562	\$1,398	\$52	\$2,012

< 교무금 > \$4,530

부건화(9-12) 조관식(11-12) 배젼마(11-12)
 김관숙(12) 김영순(12) 신기수(11-12) 이경섭(11-12)
 한동설(7-12) 원광희(10-12) 김현수(11-12)
 윤순의(11-12) 김종성(12) 이윤자(7-12) 허동원(12)
 이인학(10-12) 송인환(8-11) 신현규(9-12)
 이종규(7-12) 정석준(1-12)

< 성소후원금 > \$360

김종성(1-12) 이종규(1-12)

< Bishop's Appeal > -

< 대림초/꽃 >

임윤택 \$100 박영실 \$5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945.28
 * 지난주 봉헌 : 익명 \$600

~~~~ 오늘의 간식은 변성우안토니오/이상준 스테파노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 성탄 및 송년 전례 안내  
12월 24일(화)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  
12월 25일(수) 오전 11시 성탄 미사  
12월 31일(화)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1월 1일(수)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  
\* 25일, 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대림절 성경 쓰기 : 시편 71장 - 150장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 오늘은 성탄 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탄맞이 구역별 대청소**

|        |                      |
|--------|----------------------|
| 1 구역   | 친교실 및 무대             |
| 2 구역   | 친교실 화장실(남, 여)        |
| 3 구역   | 제의실 및 통로             |
| 4 구역   | 주차장(정문 및 후문)         |
| 5 구역   | 야외 성모상과 성김대건동상 주변 정원 |
| 6 구역   | 대건회관 정원 및 제 1 회의실    |
| 7-1 구역 | 성체조배실 및 제 2회의실       |
| 7-2 구역 | 교육관 1층 및 2층          |
| 8-1 구역 | 교육관 정문 밖 주변과 차고 쪽    |
| 8-2 구역 | 유아실 두 군데 및 통로        |
| 9 구역   | 성당 안 1, 2층           |
| 10 구역  | 교육관 정원               |
| 뜨락회    | 친교실 밖 통로 및 주방        |

- ◆ 성탄 구역별 장기자랑 및 성가경연대회  
일시 : 12월 25일 성탄 미사 후(점심이 제공됩니다.)  
\* 경품잔치에 사용될 선물(\$20 상당)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 당일 판매하는 라플 판매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12월 22일(오늘) 청소 후 친교실(정단원 및 협조단원)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올해의 교우상 심사  
사목위원들은 교중미사 후 12시 20분까지 사제관 앞 회의실로 모여 주십시오.

- ◆ 사목위원/단체장/구역장 연말 모임(신임위원 포함)  
12월 29일 미사 후 친교실

- ◆ 대림피정 강의 CD 예약 접수  
원음 버전 \$20(CD 4장과 소장용 케이스)  
MP3 버전 \$10(CD 1장과 일반 케이스)  
예약 : 친교실이나 사무실에서 오늘까지  
\* 25일 성탄 미사 전후 친교실에서 찾아가십시오.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 북가주 ME 연말 모임  
일시 : 12월 28일(토) 저녁 6시  
장소 : 산호세 성당 \* 참가비 : 부부당 \$60

- ◆ 북가주 제 25차 ME 첫주말 공지  
일정 : 2014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2박 3일)  
장소 : Hilton Garden Inn, Hayward CA  
문의 : 한요셉 415-810-3175/한헬레나 925-285-2038

- ◆ 서중부 남성 제 11차 영어권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일시 : 2014년 6월 26일 ~ 29일  
장소 : Holy Redeemer Center, Oakland  
\*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영어권 꾸르실료입니다. 남성 꾸르실리스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아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 각 단체장들께서는 2013년 결산 및 행사보고서와 2014년 예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까지** 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 각 단체장들께서는 2013년 회계장부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 2014년도 간식(떡) 신청  
한 가정이 하면 \$300, 두 가정이 같이 하면 \$150씩  
신청 : 성모회장 510-914-0709  
\* 2013년도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복음선교 연수회원 모집  
일정 : 2014년 2월 3일 ~ 2월 7일(4박 5일)  
회비 : \$600(항공료 별도)  
문의 : 이은경 줄리아 253-223-8775

**주일학교 소식**

- 2014년 1월 19일 : 개학(방학동안 영어미사 없습니다.)

**안국학교 소식**

- 12월 14일 ~ 12월 28일 : 겨울 방학  
- 2014년 1월 4일 : 개학